

#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한하린**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hlhan@kiep.go.kr, 044-414-1126)

**이대은**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delee@kiep.go.kr, 044-414-1055)



## 차 례

1. 검토 배경
2.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3.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4.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2. 5. 12)한 이후 현재(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북한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직후 북한은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여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농민이 농번기를 놓쳤고, 수인성 전염병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 운용의 애로가 예상됨.
- ▶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10일 개최된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정함.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큼.
- ▶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보는 북한 당국은 앞으로 ① 남북,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②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며 ③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내 오미크론 변이 1차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공식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장기화된 고강도 방역정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제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대외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1. 검토 배경

■ 북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고강도 봉쇄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북한은 2022년 5월 1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매일 관련 통계를 발표하며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침.
- 7월 29일 이후 신규 일일 발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자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선언하고, 자체 방역 관리체계에 자신감을 보이며 고강도 방역정책을 완화함.

■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 초기에 북한 당국의 미흡한 정책 역량으로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식량 위기,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오미크론 변이 유입 당시 △북한이 백신 미접종국이라는 점 △북한 주민의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 △부족한 보건 역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초기 예상으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천만 명의 북한 주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을 경우, 이 중 최소 2.8%인 28만 명이 입원, 최소 0.44%에 해당하는 4만 4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는 22만 명(2.2%의 사망률)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었음.<sup>1)</sup>
  - 북한 주민 상당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통한 후천적인 보호책이 전혀 없어 북한이 통제 불가능한 전염에 노출되어 새로운 변이 출현 확률도 증대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음.<sup>2)</sup>
- 북한이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적 위기와 식량 부족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초기 예상과 달리 북한 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을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이례적으로 감염병 확산 관련 통계를 매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빠른 속도로 이를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최고지도자로서의 업적으로 부각됨.
  - 북한에서 감염병 확산은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오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개된 통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북한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중단된 북중 선박과 열차 운행<sup>3)</sup>을 빠르게 재개하기 위해 단기간

1) Justin Fendos(2022. 2. 5), "North Korea's Ticking COVID Time bomb,"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2/02/north-koreas-ticking-covid-19-time-bomb/>.

2) 「백신 미접종국 북한 오미크론에 더 위험」 국제 전문가들 진단(2022. 5. 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076200009>(검색일: 2022. 6. 28).

3) 「北 선박 압록강서 운항 재개·북중 화물열차 조만간 재개 관측(2022. 8. 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49600097>(검색일: 2022. 8. 18).

감염병 확산 통제에 성공했음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후 자체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하였다고 공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중국 외 국제사회의 지원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고는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추이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 성공 과정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건 및 방역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북한의 방역·경제·대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상해보고자 함.
  - 고강도 봉쇄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초기와 달리 현재 북한은 신규 발열 환자 확산 억제에 성공하면서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이 향후 북한의 방역·경제 정책과 대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함.

## 2.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 가. 전국 코로나19 확산 현황

- 북한은 2022년 5월 12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강력한 봉쇄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억제에 집중하면서 관련 통계를 공개하였는데, ①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배경과 더불어 ②통계의 정확도·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됨.
  - [발생]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우려한 북한은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sup>4)</sup>하였으나, 2022년 5월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정치국 회의에서 봉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시인함.<sup>5)</sup>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부터<sup>6)</sup>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북한 방역체계의 허점이 있음을 지적함.
  - 전국적인 발열자 수는 2022년 5월 12일부터 증가하여 15일에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감소하여 7월 29일 이후 신규 발열 환자 수 0명을 기록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밝힘.

4) 「북한 노동신문 "신종코로나 비상조치에 절대 복종해야"」(2022. 2. 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11500504> (검색일: 2022. 7. 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정치국회의 진행」(2022. 5. 12),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Burki, Talha(2022), "COVID-19 in North Korea," The Lancet World Report, Vol. 399, p. 2339.

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였다」(2022. 5. 13),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공개 배경]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시인한 5월 12일부터 북한은 일별 코로나19 발열자 통계(전국 및 지역별 발열자, 치료 중 환자, 사망자, 완치자)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이 통계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북한이 코로나19 발열자 통계를 공개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다면 당과 내각의 안정적인 통치력과 코로나19 확산 통제의 높은 성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대외적으로는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이 외부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음.
- [발병률] 하지만 북한의 공식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통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 5월 12일부터 약 이틀 동안만 코로나19가 ‘확진자’ 수와 ‘발열자’ 수가 구분되어 보도되었으나, 15일부터는 발열 증상 환자의 통계만 보도하면서 무증상 감염자는 ‘발열 환자’로 집계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오미크론 변이 유증상자 중 발열 환자가 전체 감염 환자의 30%<sup>8)</sup>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보다 4~5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치명률] 북한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대폭 축소되어 발표된 것으로 보임(부록 표 1 참고).
  - 북한 내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002%로, 해당 수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인 0.6%<sup>9)</sup>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누적 치명률이 0.13%인 한국보다도 확연히 낮음.<sup>10)</sup>

### 글상자. 북한이 사망자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이유

- ①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가 한정된 것으로 추정됨.<sup>11)12)</sup>
- ② 당국의 처벌을 두려워한 지역별 위생 및 방역 관료들이 발열 환자 관리에 소홀했으나,<sup>13)</sup> 처벌이 두려워 이를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됨.
- ③ 발열자 수와 사망자 집계를 소홀히 했거나 정보 공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sup>14)15)</sup>도 생각해볼 수 있음.

7) 「코로나 북한, 확진자 대신 “유열자” 왜?..당장 부족한 3가지」(2022. 5. 15),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86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867.html)(검색일: 2022. 7. 14).

8) 「북한 코로나19 실제 확진자 1,000만 명 달해..치명률도 더 높을 듯」(2022. 5. 26), 『동아사이언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54583>(검색일: 2022. 7. 13).

9) 백신 미접종 시 0.6%, 백신 접종 시 0.07%로 알려짐.

10) 「신규확진 3만 9,196명·전주의 2.1배로 늘어 ‘더블링’ 계속(종합)」(2022. 7. 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4047700530>(검색일: 2022. 7. 14).

11) 「북한 코로나 사망 71명 미스터라...신영전 교수 “5만명 이상일 것”」(2022. 6. 1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63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630.html)(검색일: 2022. 7. 1).

12) 전체 사망자 중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하여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3) 「북 코로나 치명률 0.002%... 간부들 처벌 두려워 축소 가능성」(2022. 6. 2), 『RFA 자유아시아 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nk-06022022094211.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nk-06022022094211.html)(검색일: 2022. 7. 17).

14) 특히 발열 환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5월 12일 이전에도 발열 환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4월 말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음. 관련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15) 이는 감염병 확산이 최고지도자의 흡결이 되기 때문임.

- [사망 원인] 북한 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은 코로나19의 증상과 상당 부분 유사<sup>16)</sup>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표 1 참고).

표 1. 북한 내 사망원인(누적)

일자	기초질병	약물 부작용	열성경련	후두경련	소화기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5. 14	22	17	2	1	-	-	-	-
5. 21	-	32	2	1	3	9	10	11

주: 사망자 수는 단 이틀만 공개됨.

자료: 조선중앙 TV(2022. 5. 14·21) 방송,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 [확산 추세]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발병 근원지로 평양 및 그 인근이 지목되었지만, 현재 북한은 근원지로 남북 접경지역을 지목하고 있어 감염병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통제 이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시기는 제한적으로 북중 무역이 재개된 지난 1월로 추정되며,<sup>17)</sup>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기념 열병식 때의 마스크 미착용을 들 수 있음.
- 북한 공식 통계가 정확하다는 가정한다면, 7월 29일 이후 전국적으로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빨랐던 만큼 확진자 수도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여 전체 유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판단됨.
- [통제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 통제에 성공했음을 자평한 이후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감염병 확산이 통제된 직후 4월 초 남북 접경지역에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공표함<sup>18)</sup>으로써 북한 당국의 감염병 확산 책임 소재를 외부로 전가하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흠결을 상쇄하고자 함.
  - 이로써 명목적으로 성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업적이 되었음.

16) 「북 코로나 치명률 0.002%...간부들 처벌 두려워 축소 가능성」(2022. 6. 2),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nk-06022022094211.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nk-06022022094211.html)(검색일: 2022. 7. 17).

17) 「北 코로나19 발병 첫 공식 확인... 확산세 심각할 수도」(2022. 5. 12), 『뉴스1』, <https://v.daum.net/v/20220512124629006>(검색일: 2022. 7. 1).

18) 조선중앙TV(2022. 7. 1) 방송 보도.

그림 1. 북한 전역 발열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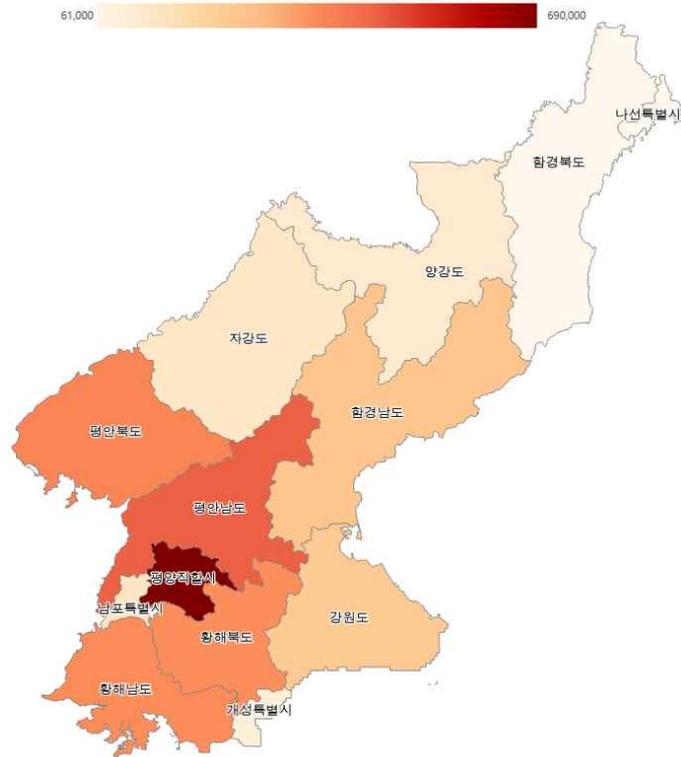


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총 발열 환자 수를 발생 일 전날 18시부터 당일 18시까지 취합하여 1~2일 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함.

자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였다」(2022. 5. 13),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김정은국무위원장 지도」(2022. 5. 14),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전국적인 전염병전파 및 치료상황 통보」(2022. 5. 15~6. 1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검색일 2022. 6. 1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북한 지역별 발열자 합계(누적, 2022년)

(단위: 명)



자료: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북한 당국의 대응

■ 북한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한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함(표 2 참고).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12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지역별 봉쇄와<sup>19)</sup> 함께 발열자 격리 조치를 지시함.<sup>20)</sup>
- 이후 5월 14일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중국 방역정책을 답습<sup>21)</sup>하는 방향으로 봉쇄정책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함.
- 북한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5월 31일)에서 의료체계 및 비상방역체계 점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봉쇄정책 위반 시 처벌을 가하는 등 발열자 확산 예방 조치를 시행함.<sup>22)</sup>
- 이외에도 △자가격리 지침 배포 △개인위생 방역수칙 △의약품 분배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 보전 △소독을 시행하면서 감염병 확산 억제에 총력을 기울임(표 2 참고).

표 2.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대응 유형	대응방안
① 봉쇄와 격폐	- 4중 방어막 형성: △ 환자 격리 △ 생활 단위, 생산 단위, 사업단위 격폐 △ 시군 단위 봉쇄 △ 국경 봉쇄 - 살림집 건설노동자들에게 중국 백신 접종 - 봉쇄된 지역이나 격폐된 단위별로 발열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책임 강조
② 검병 검진	- 140만 명 보건일군(병원 의료일군, 호담당 의사, 의료양성기관 학생, 교원 인민반장) 동원 - 매일 2~3회 주민 대상 검병 검진 실시 -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진단키트 부족) - 숙소, 식당 등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규칙 준수 - 자택 격리방안 배포
③ 의약품 공급	- 중국 의약품 반입 - 의약품 공장 생산 활성화 - 국가 예비 의약품 보급(조선인민군 투입)
④ 생활 보장	- '문고리 택배' 배달서비스 진행 - 봉쇄지역, 격리가정에 보급품 제공 - 의료일군 가정 지원 및 책임 강조
⑤ 소독 사업	- 사업공간, 작업공간, 생활공간 소독사업 강화 - 공공장소 소독 - 화폐와 휴대전화기 소독 독려 - 물품 수입 시 유동 인원과 운전 기재(기관차, 여객차, 화차, 자동차) 소독

19)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의 진행」(2022. 5. 12),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2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기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였다」(2022. 5. 13),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21) 「北, 코로나 유증상자·사망자 급증…김정은 "건국 이래 대동란」(2022. 5. 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4018154504>(검색일: 2022. 6. 23).

22) 박서화(2022. 6. 16), 「「비상방역법」 수정 보충과 「의료감정법」 채택의 의미」, 『IFES 브리프』, No. 2022-1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응 유형	대응방안
	- 조류와 야생동물 집중 감시 - 오물과 오수처리장 소독 - 호수, 강물 채수 검체 검사, 공기시료 채취, 미세먼지 검사
⑥ 선전사업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 TV, 조선중앙 라디오 방송 활용 - 주민 교육 선전 프로그램 편성 - 보건일군의 해설 선전
⑦ 기타	- 역학조사 사업 - 항체 검사기와 시약 개발, 유전자배열 검사(변이 바이러스 검사) - 안전 급수가 높은 실험실 사업 추진 - 시군 위생방역소 구축

자료: 최성우(2022. 6. 26), 「북한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병 및 위생방역체계 리뷰」 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북한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봉쇄하고 격리하는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 [목적] 북한의 방역정책은 모든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2020년도 봉쇄정책에 더 가까운데(표 3 참고), 이는 지역 단위의 봉쇄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중국의 2020년 봉쇄정책과 2022년 봉쇄정책 비교

내용	2020년	2022년
봉쇄정책	도심 전체 광범위한 봉쇄와 격리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위험 지역을 구분한 후 봉쇄 및 격리
정책목표	전수 검사를 통한 감염자 선별 및 장기간 주민 자가격리	전수 검사를 통한 감염자 선별
봉쇄 기간	2020년 1월 23일~4월 8일(76일)	2022년 3월 28일~5월 31일(64일)
봉쇄 형태	핵심 분야 외 지역 주민 전체 봉쇄	지역별 순환 봉쇄
영향 및 결과	중국 내수경제 우려 및 코로나19 확산	전 세계 공급망 및 경제성장 악화

자료: 허재철, 김주혜(2022),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2-14, pp. 5~6; 「우한 76일→상하이 4일...중국 코로나 봉쇄모델 어떻게 변해왔나」(2022. 3. 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0091900089>(검색일: 2022. 6. 22).

- [영향] 강력한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농민이 농번기를 놓치고,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져 식량난이 예상되며, 이 경우 목표하고자 하는 경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됨.
  - 봉쇄정책으로 봄철 모내기가 일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올해 8월부터 식량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sup>23)</sup>

23) 「유엔 “북한 코로나 봉쇄 따른 식량난 우려”...전문가들 “8월부터 상황 악화될 것”」(2022. 6. 9), VOA, <https://www.voakorea.com/a/6608862.html>(검색일: 2022. 6. 28).

- 북한 최대 식량 생산지인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인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장내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다른 전염병들이 발생함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단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역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sup>24)</sup> 북한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음.

■ 초기 예상과 달리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없다고 발표함<sup>25)</sup>에 따라 북한은 8월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선언함.<sup>26)</sup>

- 7월 29일 이후 신규 발열 환자 수가 0명으로 유지되자 북한은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방역에 대한 당국의 자신감을 과시함(부록 표 1 참고).
- 8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북한이 백신 미접종국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최단기간 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함.
-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나 원숭이두창, 수인성 전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어 코로나19 종식 선언 대신 신규 변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역정책을 발표함.

■ [소결] 북한 당국은 신규 발열 환자가 급증하자 관련 통계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고강도 봉쇄정책으로 감염병 확산을 빠르게 억제했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 내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어려워 보임.

- 코로나19 상황 관련 통계를 공개한 데는 대내적으로 당과 내각의 안정적 통치력을 통해 주민 안정, 대외적으로 북한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초기에는 북한 내 자체 방역체계의 허점에 대한 반성을 드러냈으나,<sup>27)</sup> 감염병 확산이 억제된 현재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고, 이를 억제할 최고지도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등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3.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부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음.

- 특히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중국의 지원 여부와 북한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었음.

24) 「북중 화물열차 중단 석달...「해상교역 의존, 선박 확보 경쟁」(2022. 7. 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148400097>(검색일: 2022. 8. 10).

25) 지난 5일에는 평안북도 정주시와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발열 환자 6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이들의 발열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당국의 조사 결과를 발표,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발열 환자는 열흘째 전무한 것으로 추정됨.

26)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 선포...정상방역 체계로”(종합)(2022. 8. 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11251504>(검색일: 2022. 8. 17).

27) 초기 발병 근원지로 평양이 지목되었음.

- [중국] 중국정부는 북한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발생을 공표한 직후 이웃 국가로서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sup>28)</sup> 이후 북한의 요청에 따라 120톤에 달하는 방역물품과 의약품을 전달함.<sup>29)</sup>
- [한국] 한국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백신,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 의약품을 포함한 방역·보건으로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sup>30)</sup> 북한은 한국정부의 보건 및 방역 협력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군 장병을 동원한 의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에 의존<sup>31)</sup>하고 있음.
  -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던 5월 30일에도 방역 관련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진간 접촉 제안에 대해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음.<sup>32)</sup>
- [국제사회] 코백스와 UNICEF는 각각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고, 방역 및 기타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 코백스가 2021년<sup>33)</sup>에 이어 2022년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128만 8천 800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한 북한은 백신 수용을 거부<sup>34)</sup>함.
    - 북한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백스와 WHO는 북한 내 코로나19 발병 사태와 관련해 북한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sup>35)</sup>
  - 한편 UNICEF는 북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sup>36)</sup> 관련 절차까지 밟았으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은 전달되지 않았음.
    - 2021년 11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UNICEF가 요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대한 1년간의 제재 면제를 승인함.<sup>37)38)</sup>
- [소결]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중국 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28) 「中 “北 코로나 방역 전력 지원 준비돼있다”」(2022. 5. 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53000083>(검색일: 2022. 6. 21).

29) 「중국, 북한에 첫 방역 지원… 비행기로 실어날라」(2022. 5. 17),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637\\_3574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637_35744.html)(검색일: 2022. 6. 3).

30) 「권영세 “北”에 백신·해열제 등 지원 필요시 최대한 준비」(2022. 5. 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20851504>(검색일: 2022. 6. 21).

31) 「북한, 신종 코로나 폭증에도 내부 통제-중국 지원 의존...전문가 “향후 2~3주면 대규모 사망 단계 돌입”」(2022. 5. 17), 『VOA』, <https://www.voakorea.com/a/6576563.html>(검색일: 2022. 6. 27).

32) 이는 북한이 중국 측에 방역 지원을 요청한 데다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방역물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33) 2021년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하였음.

34) 「백신 미접중국 북한 오미크론에 더 위험」 국제 전문가들 진단(2022. 5. 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076200009>(검색일: 2022. 6. 21).

35) 「코백스 “대북 백신 지원 준비 돼·북한 아직 정식 요청 없어”」(2022. 5. 20), 『VOA』, <https://www.voakorea.com/a/6582538.html>(검색일: 2022. 6. 27).

36) 위의 자료.

37)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코로나19 백신 냉동 유통 및 보관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짐.

38) 「유니세프 ‘코로나 대응 물품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2021. 12. 9), 『VOA』, <https://www.voakorea.com/a/6344728.html>(검색일: 2022. 6. 27).

## 4. 전망 및 시사점

■ [방역] 신규 발열자 수가 7월 29일 이후 전무함에 따라 북한이 수립한 방역체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데다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제2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발열 환자 추세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북한 내 오미크론 변이 1차 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백신 접종 없이 발열자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고 자평함.
- 그러나 제한적으로 공개된 관련 공식 통계가 북한 정부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최고지도자가 위기관리 및 통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으로부터 받은 기본 방역물품과 의약품 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적 성격의 방역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변이의 재확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경제] 북한이 장기간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최근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얻자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타진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고강도 방역정책이 지속되면서 북한에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조치가 다른 전염병의 확산을 유발하고 있음.
  - 북한이 생활·생산·사업 단위별로 격폐(隔閉)를 단행하면서 격리된 집단생활이 증가했고, 결핵이나 수인성 전염병 등 다른 전염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됨.
  -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부족한 북한이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격리조치를 시행<sup>40</sup>했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가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에 식량난 발생이 우려됨.
  - 봉쇄정책으로 봄철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올 가을부터 식량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sup>41</sup>
  - 북한 최대 식량 생산지인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인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들(장내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80만 톤 내외인 것으로 추정<sup>42</sup>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39) 「의학계 “北 오미크론 1차 유행 끝난 듯…재유행 전 백신 필요”」(2022. 6.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164600504>(검색일: 2022. 6. 25).

40) 「의학계 “北 봉쇄방역이 결핵·수인성질병 전파 촉진…백신 써야”」(2022. 6.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6041100504>(검색일: 2022. 6. 27).

41) 「유엔 “북한 코로나 봉쇄 따른 식량난 우려”…전문가들 “8월부터 상황 악화될 것”」(2022. 6. 9), VOA, <https://www.voakorea.com/a/6608862.html>(검색일: 2022. 6. 28).

42) 「코로나·가뭄 겹친 北 5월 중서 콩 등 식료품 대거 수입」(2022. 6.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63400097>(검색일: 2022. 6. 28).

- 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북중 간 교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조만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신의주 근처)에서 북·중 간 화물열차 및 트럭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sup>43)</sup>
-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북한 당국은 7월 말부터 상업시설과 다중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고속열차와 시외버스도 점차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음.
- 또한 전방과 국경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휴양, 요양, 관광을 정상화하였으며, 각종 상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해제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음.

■ [대외관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정치적 의도가 배제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없다”<sup>44)</sup>고 북한이 공언한 만큼 중국 중심의 대외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자신하는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봉쇄 일변도의 정책으로 감염병 및 신규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통제할 것으로 전망됨.

■ [종합] 결과적으로 북한이 백신 미접종국임에도 감염병 확산 억제는 정치적 성과(업적)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8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백신 미접종국임에도 3개월이라는 최단기간 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함.
  - 다만 코로나19 변이가 재확산할 수 있고, 원숭이두창 및 수인성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방역에 대한 긴장도를 늦출 수는 없다고 밝힘.
- 감염병 유입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sup>45)</sup>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초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은 리더십의 타격은 일부 상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KIEP**

43) 「북중 화물열차 9일째 재개 움직임…트럭 운행은 하순께」(2022. 8. 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7022500504> (검색일: 2022. 8. 8).

44) 「北 외무성, 미국의 인도 지원 제안에 “집안일이나 신경 써라”」(2022. 6. 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188900504>(검색일: 2022. 7. 18).

45)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전단살포 보복검토”(종합3보)」(2022. 8. 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11253504>(검색일: 2022. 8. 18).

부록 표 1. 북한 전역 발열자 현황(2022년)

발생 일자	당일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사망자	발열자	발열 사망자	완치자	치료 중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사망자	발열자	발열 사망자	완치자
이전	-	-	332,000	-	162,000	-	-	-	-	-	-
5.12	-	1	18,000	6	-	187,000	0	1	-	6	-
5.13	90	-	174,440	21	81,430	280,810	90	1	524,440	27	243,630
5.14	78	-	296,180	15	252,400	324,550	168	1	820,620	42	496,080
5.15	-	-	392,920	8	152,600	564,860	168	1	1,213,550	50	648,630
5.16	-	-	269,510	6	170,460	663,910	168	1	1,483,060	56	819,000
5.17	-	-	232,880	6	205,630	691,170	168	1	1,715,950	62	1,024,720
5.18	-	-	262,270	1	213,280	740,160	168	1	1,978,230	63	1,238,000
5.19	-	-	263,370	2	248,720	754,810	168	1	2,241,610	65	1,486,730
5.20	-	-	219,030	1	281,350	692,480	168	1	2,460,640	66	1,768,080
5.21	-	-	186,090	1	299,180	579,390	168	1	2,646,730	67	2,067,270
5.22	-	-	167,650	1	267,630	479,400	168	1	2,814,380	68	2,334,910
5.23	-	-	134,510	0	213,680	400,230	168	1	2,948,900	68	2,548,590
5.24	-	-	115,970	0	192,870	323,330	168	1	3,064,880	68	2,741,470
5.25	-	-	105,500	0	157,020	271,810	168	1	3,170,380	68	2,898,500
5.26	-	-	100,460	1	139,180	232,090	168	1	3,270,850	69	3,037,690
5.27	-	-	88,520	0	118,620	203,000	168	1	3,359,380	69	3,156,310
5.28	-	-	89,500	0	106,390	186,110	168	1	3,448,880	69	3,262,700
5.29	-	-	100,710	1	98,290	188,530	168	1	3,549,590	70	3,360,990
5.30	-	-	96,020	0	101,610	182,940	168	1	3,645,620	70	3,462,610
5.31	-	-	93,180	0	98,350	177,770	168	1	3,738,810	70	3,560,960
6.1	-	-	96,610	0	108,990	165,390	168	1	3,835,420	70	3,669,950
6.2	-	-	82,160	0	93,830	153,720	168	1	3,917,580	70	3,763,790
6.3	-	-	79,100	1	86,100	146,720	168	1	3,996,690	71	3,849,890
6.4	-	-	73,780	0	82,030	138,480	168	1	4,070,480	71	3,931,920
6.5	-	-	66,680	0	77,540	127,620	168	1	4,137,160	71	4,009,470
6.6	-	-	61,730	0	74,100	115,240	168	1	4,198,890	71	4,083,580
6.7	-	-	54,610	0	66,550	103,300	168	1	4,253,510	71	4,150,140
6.8	-	-	50,860	0	60,470	93,690	168	1	4,304,380	71	4,210,610
6.9	-	-	45,540	0	55,250	83,980	168	1	4,349,920	71	4,265,860
6.10	-	-	42,810	0	49,640	77,150	168	1	4,392,730	71	4,315,510
6.11	-	-	40,060	1	46,040	71,160	168	1	4,432,800	72	4,361,560
6.12	-	-	36,710	0	42,650	65,230	168	1	4,469,520	72	4,404,210
6.13	-	-	32,810	0	40,260	57,780	168	1	4,502,330	72	4,444,480
6.14	-	-	29,910	0	35,380	52,310	168	1	4,532,240	72	4,479,860
6.15	-	-	26,010	1	32,090	46,230	168	1	4,558,260	73	4,511,950
6.16	-	-	23,160	0	28,430	40,960	168	1	4,581,420	73	4,540,390
6.17	-	-	20,360	0	24,920	36,390	168	1	4,601,790	73	4,565,320
6.18	-	-	19,310	0	21,930	33,780	168	1	4,621,110	73	4,587,250
6.19	-	-	18,820	0	21,060	31,540	168	1	4,639,930	73	4,608,320
6.20	-	-	17,250	0	19,520	29,270	168	1	4,657,190	73	4,627,840
6.21	-	-	15,260	0	18,540	26,000	168	1	4,672,450	73	4,646,380
6.22	-	-	13,100	0	16,480	22,620	168	1	4,685,560	73	4,662,860
6.23	-	-	11,010	0	13,890	19,740	168	1	4,696,580	73	4,676,760
6.24	-	-	9,610	0	12,050	17,300	168	1	4,706,190	73	4,688,810
6.25	-	-	8,920	0	10,600	15,630	168	1	4,715,120	73	4,699,410

6.26	-	-	7,300	0	9,090	13,840	168	1	4722,430	73	4708,510
6.27	-	-	6,710	0	8,170	12,380	168	1	4729,140	73	4716,680
6.28	-	-	5,980	0	7,120	11,240	168	1	4735,120	73	4723,810
6.29	-	-	4,730	0	6,720	9,250	168	1	4739,860	73	4730,530
6.30	-	-	4,570	0	5,690	8,130	168	1	4744,430	73	4736,220
7.1	-	-	4,100	0	4,870	7,360	168	1	4748,530	73	4741,090
7.2	-	-	3,540	0	4,490	6,430	168	1	4752,080	73	4745,580
7.3	-	-	3,030	0	3,910	5,550	168	1	4755,120	73	4749,490
7.4	-	-	2,500	0	3,430	4,620	168	1	4757,620	73	4752,920
7.5	-	-	2,140	0	2,760	4,000	168	1	4759,770	73	4755,690
7.6	-	-	1,950	0	2,400	3,550	168	1	4761,730	73	4758,100
7.7	-	-	1,630	0	2,060	3,110	168	1	4763,360	73	4760,170
7.8	-	-	1,590	0	1,790	2,910	168	1	4764,950	73	4761,960
7.9	-	-	1,460	0	1,700	2,670	168	1	4766,420	73	4763,670
7.10	-	-	1,240	0	1,630	2,280	168	1	4767,660	73	4765,300
7.11	-	-	900	0	1,330	1,850	168	1	4768,560	73	4766,640
7.12	-	-	770	0	1,050	1,570	168	1	4769,330	73	4767,690
7.13	-	-	560	0	820	1,310	168	1	4769,900	73	4768,510
7.14	-	-	500	0	690	1,120	168	1	4770,400	73	4769,210
7.15	-	-	460	0	590	980	168	1	4770,860	73	4769,800
7.16	-	-	430	0	540	870	168	1	4771,290	73	4770,340
7.17	-	-	310	0	470	710	168	1	4771,600	73	4770,820
7.18	-	-	250	0	380	590	168	1	4771,860	73	4771,200
7.19	-	-	250	0	350	490	168	1	4772,120	73	4771,550
7.20	-	-	170	0	300	360	168	1	4772,290	73	4771,860
7.21	-	-	140	0	170	330	168	1	4772,440	73	4772,030
7.22	-	-	120	0	100	350	168	1	4772,560	73	4772,130
7.23	-	-	120	0	110	360	168	1	4772,680	73	4772,240
7.24	-	-	50	0	80	330	168	1	4772,740	73	4772,330
7.25	-	-	30	0	110	260	168	1	4772,780	73	4772,440
7.26	-	-	18	0	40	230	168	1	4772,790	73	4772,490
7.27	-	-	11	0	18	228	168	1	4772,810	73	4772,508
7.28	-	-	3	0	14	217	168	1	4772,813	73	4772,522
7.29	-	-	0	0	13	204	168	1	4772,813	73	4772,535
7.30	-	-	0	0	28	176	168	1	4772,813	73	4772,563
7.13	-	-	0	0	32	144	168	1	4772,813	73	4772,595
8.1	-	-	0	0	49	95	168	1	4772,813	73	4772,644
8.2	-	-	0	0	90	5	168	1	4772,813	73	4772,734
8.3	-	-	0	0	5	0	168	1	4772,813	73	4772,739
8.4	-	-	0	0	0	0	168	1	4772,813	73	4772,739
8.5	-	-	0	0	0	0	168	1	4772,813	73	4772,739
8.6	-	-	0	0	0	0	168	1	4772,813	73	4772,739
8.7	-	-	0	0	0	0	168	1	4772,813	73	4772,739
8.8	-	-	0	0	0	0	168	1	4772,813	73	4772,739

주: 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12일부터 통계를 제공하였고, 본 통계도 이와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며, 5월 12일 이전 발열자 수는 5월 13일 발열자 숫자와 5월 14일 발열자 숫자를 5월 14일 누적 발열자 수에서 차감하여 역으로 계산함.

자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었다」(2022. 5. 13),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김정은국무위원장 지도」(2022. 5. 14),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2. 6. 9); 「전국적인 전염병전파 및 치료상황 통보」(2022. 5. 15~8. 9),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검색일 2022. 8. 9).



7.1	7.1	143	884	532	548	978	50	208	13	161	14	137	9
7.2	7.2	127	699	444	557	781	44	248	11	172	14	96	6
7.3	7.3	121	620	432	484	621	45	179	19	111	18	109	4
7.4	7.4	-	-	-	-	-	-	-	-	-	-	-	-
7.5	7.5	-	-	-	-	-	-	-	-	-	-	-	-
7.6	7.6	67	373	331	313	361	26	131	2	110	14	26	4
7.7	7.7	77	255	266	323	299	17	123	5	96	11	11	7
7.8	7.8	77	250	297	295	241	24	113	5	101	9	4	3
7.9	7.9	57	203	333	259	184	12	160	3	105	6	0	2
7.10	7.10	49	228	346	137	132	11	115	1	92	9	0	8
7.11	7.11	38	196	249	68	64	10	90	3	80	11	0	4
7.12	7.12	-	-	-	-	-	-	-	-	-	-	-	-
7.13	7.13	32	88	142	19	28	4	58	7	87	6	0	2
7.14	7.14	27	56	149	15	23	8	77	2	58	9	0	2
7.15	7.15	40	49	138	11	10	5	63	4	58	9	0	1
7.16	7.16	24	37	133	7	8	5	72	3	50	10	0	0
7.17	7.17	-	-	-	-	-	-	-	-	-	-	-	-
7.18	7.18	11	17	64	8	4	3	43	2	26	5	0	0
7.19	7.19	24	6	65	4	1	3	50	0	25	1	0	0
7.20	7.20	11	0	23	4	0	5	56	0	23	0	0	0
7.21	7.21	4	0	10	1	7	2	59	1	14	0	0	1
7.22	7.22	4	0	4	1	19	2	33	0	18	0	0	0
7.23	7.23	0	0	1	1	16	3	29	1	5	0	0	0
7.24	7.24	-	-	-	-	-	-	-	-	-	-	-	-
7.25	7.25	-	-	-	-	-	-	-	-	-	-	-	-
7.26	7.26	0	0	0	0	0	0	0	0	3	0	0	0

주: 북한은 5월 27일, 29일, 6월 7일 외 여러 일자에 지역별 발열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자료: 조선중앙 TV 오후방송,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